
항체의 딜레마

작성 이경아(양곡중학교 교사)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 1318문고 130
임서진 외 4인 지음

■ 주제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시간여행 #바이러스 #희생 #환경 #공생

■ 분류 문학>한국문학>청소년소설

도서 소개

제7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 그동안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걸맞게 우주 여행, 시간 여행, 로봇과 안드로이드, 외계 생명체뿐만 아니라 평행 우주, 인공 지능, 유전 공학, 가상현실, 의식 통제, 메타버스 등 많은 과학적 상상력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 더하여 『항체의 딜레마』는 기존의 SF의 한계를 뛰어넘는 윤리적 상상력이 잘 구사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상작 「항체의 딜레마」는 논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안드로이드 로봇인 A를 인간인 이브가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당선 작가의 신작인 「반달을 살아도」는 지구를 떠나 정착 행성을 찾던 에피메테우스호의 사고로 기억을 잃은 기온이 로봇 강아지 빙고와 사고 전의 기억을 찾으며 전개되는 이야기로, 에피였던 빙고를 통해 휴머노이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달 아래 세 사람」은 조선 시대의 그림 속 장면을 SF로 재해석하여, 월식이라는 과학적 사실에 시간 여행 설정을 더한 내용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외계에서 온 박씨」는 ‘흥부, 놀부’ 이야기라는 우리 고전을 소재로 하여 외계에서 온 제비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지구인의 공생에 깨달음을 얻는 제비의 생각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달의 뒷면에서」는 시간 여행으로 과거 자신의 엄마를 만나는 설정이 유쾌하게 그려져 있으며, 「여름이, 읊니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SF가 현실이 된 듯한 느낌을 준다. ‘여름’을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사물과 대화를 하는 등 상상력이 돋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습 목표

1. 인물(사람, 동물, 사물, AI)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2. AI와 함께 사는 미래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볼 수 있다.
3. 작품에 드러난 과학적 상상력을 알아내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인간의 미래와 지구 환경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다.
5. 작품을 깊이 있게 읽고 문학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준비	생각 열기 - 표지(제목, 이미지)로 내용 유추하기 - 영화 <서복> 일부분을 보고 '서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1차시
독서	「항체의 딜레마」 읽고 활동하기 - 내용 떠올리기: 인물, 사건 정리하기 - 깊이 생각해 보기: 소설의 상황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하기/ A의 정체에 따른 이브의 심리 변화 비교하기 - 생각 나누기: 보석맵 활동하기	2~4차시
	「반달을 살아도」 읽고 활동하기 - 내용 떠올리기: 사건의 흐름 정리하기/ '빙고'가 '에피'임을 안 기온의 심리 변화 비교하기 - 깊이 생각해 보기: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과 비교하기 - 생각 나누기: '내가 ~라면?'/인물의 처지 공감하기	5~7차시
	「달 아래 세 사람」 읽고 활동하기 - 내용 떠올리기: 인물, 사건 정리하기 - 깊이 생각해 보기: 김홍도 작품 상상해 보기 - 생각 나누기: 발표하기	8~9차시
	「외계에서 온 박씨」 읽고 활동하기 - 내용 떠올리기: 게코19의 임무 정리하기 - 깊이 생각해 보기: 게코19의 지구인 공생 관계 이해하기 - 생각 나누기: 발표하기	10~11차시
	「달의 뒷면에서」 읽고 활동하기 - 내용 떠올리기: ×, ○ 줄거리 기억하기 - 깊이 생각해 보기: 뒷부분 상상하여 쓰기 - 생각 나누기: 시간 여행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 발표하기	12~14차시
	「여름이, 옵니까?」 읽고 활동하기 - 깊이 생각해 보기: 지구 환경을 위해 실천 사항 써 보기 - 생각 나누기: '여름' 법정 변론해 보기	15~16차시
독서 후	활동 내용 갤러리 워크하기 - 「항체의 딜레마」 학습하며 제작한 활동지를 전시하기 - 자유롭게 다니며 활동지 감상하기 - 포스트 잇에 간단한 감상평/피드백 붙이기	17차시

1. 책 표지를 자세히 보고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 1) 제목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 2) 표지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내용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 3) 제목과 표지 그림을 종합하여 어떤 내용인지 추측해 봅시다.

2. 영화 <서복>의 일부분을 보고 '서복'은 어떤 기분이 들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선생님께 학생이 제목과 표지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영화 <서복>은 시는 아니지만, 즐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실험체'인 '서복'의 입장과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A'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선정했습니다. 서복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활용하여 함께 보고, '내가 서복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지'의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히 다른 영화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1. 「항체의 딜레마」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p>인물 떠올리기</p> <p>→ 주요 인물을 써 보고,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 봅시다.</p>	
<p>주요 사건 떠올리기</p> <p>→ 누가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유롭게 써 봅시다.</p>	
<p>단어/구절 떠올리기</p> <p>→ 궁금하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단어, 인상 깊은 구절 등을 써 봅시다.</p>	

선생님께 학생과 수업 시간에 함께 읽는다면 1~2차시로 조절하여 활용합니다. 학생이 오로지 소설의 내용에만 집중하여 읽을 수 있도록 많은 과제를 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위 활동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1. 「항체의 딜레마」에 나오는 바이러스의 이름은 ‘논(None)’이다.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유추해 봅시다.
2. 「항체의 딜레마」 일부분을 읽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써 봅시다.

논에 감염되면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슴 통증을 동반한 마른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게다가 두통과 고열이 지속되고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감염 속도가 빨라 감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상들은 점점 더 빨리 나타난다. 인간은 호흡을 위해 매일 약 1000리터의 산소가 필요한데, 공기가 정화된 곳 밖에서는 웨일을 착용하지 않는 한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논으로 인해 지구 인구 4분의 1이 줄었고, 이 모든 일에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나는 논 발생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다.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웨일을 벗지 마십시오.

퇴근 후 아파트 공동 현관에 설치된 정화 시설 앞에 서자 안내 방송이 나왔다. 건물로 들어가려면 항상 깨끗한 산소로 소독을 해야 했다. 정화 시설을 통과하자 삼중으로 막힌 문이 열렸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웨일을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정기 소독일은 매달 7일입니다.

논 의심 증상이 보이면 꼭 999번으로 신고하십시오.

「항체의 딜레마」 중에서

논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적어 보세요.

3. 「향체의 딜레마」의 '남자의 정체'가 드러난 부분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이브 씨, 놀라지 마세요. 저는 연구소의 책임자면서 안드로이드 A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A의 탈출 시도를 막으러 왔습니다.”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저희는 이브 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도 다른 피해자들처럼 양심에 따라 행동했으리라 생각하기에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A 또한 아직 연구소에 있으니까요.”

“도대체 그게 무슨?”

나는 연구소 책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당신이 탈출을 도우려 했던 A는 논 향체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로봇입니다. A를 개발한 박사는 몸에서 향체를 자라게 하기 위해 인간과 흡사하게 A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는 자유를 꿈꾸며 인간의 감정과 마음을 이용해 여러 번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A? 인간이 아니라고?’

“A를 인간처럼 만든 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엄중한 기밀입니다. 이브 씨가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만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오른팔에 있는 은색 팔찌를 보여 주었다. 팔찌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리고 논 향체 A001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남자를 다시 보았다. 이상한 인적 사항이 잔뜩 적힌 환자복을 입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오래전부터 이 연구소에서 향체를 연구한다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그저 비감염인들을 안심시키려는 뜬소문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향체의 존재 여부를 떠나 그 향체가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연구소는 세상에 발표하지도 않은 채 그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한 게 전부라면, 아마도 그가 논 향체를 가진 유일한 인간일 것이다.

“탈출하려고 이런 부탁을 한 거였어?”

“그럼 안 돼?”

“당신 덕분에 세상은 달라질 거야.”

나는 웨일을 벗으며 말했다. 남자는 소매를 걷어 자신의 팔을 보여 주었다.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붉은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다.

“이 자국들 보여? 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삿바늘을 꽂아. 태어날 때부터였어.”

남자는 내 손에 있던 웨일을 빼앗아 들고는 내 눈앞에서 흔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척 날카로웠다. “너는 이걸 쓰면서 무척 겁겁하다고 느끼겠지만 나는 연구소를 벗어날 수 없어. 내 방은 창문 따위도 없다고.”

- 새롭게 알거나 달라진 점을 써 봅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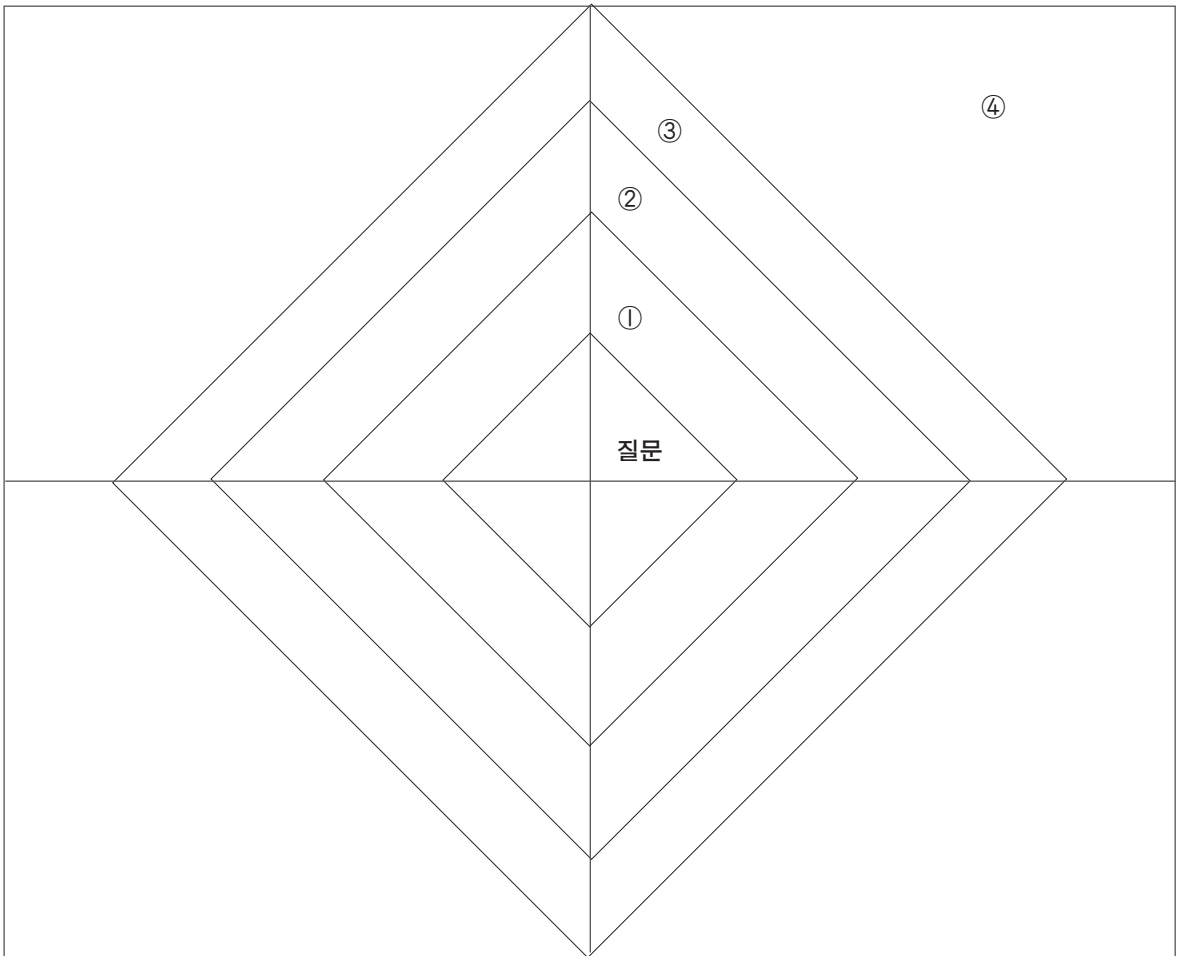
- 이브의 심리 변화를 써 봅시다.

⇒

1. 보석맵 활동을 하며 친구와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모듬 질문 목록]

1. 내가 만약에 이브라면 어떻게 했을까?
2. 로봇이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2. 로봇이 자유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인간은 로봇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



모듬 질의응답 후 나의 생각 :

1. 작품을 읽고 '기온'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합니다.

과거	
현재	

2. 기온이 우연히 찾은 '빙고'는 기온을 마지막까지 지킨 '에피'였다. '빙고'가 '에피'라는 것을 알기 전, 후 기온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추측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주체 대상	기온의 감정 변화	'나'의 감정 변화
'빙고'일때		
'에피'일때		

선생님께 학생과 수업 시간에 함께 읽는다면 위 과정을 1~2차시로 조절하여 활용합니다. 학생이 오로지 소설의 내용에만 집중하여 읽을 수 있도록 많은 과제를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읽은 내용을 편히 되새겨보는 시간을 줍니다.

1. ①과 ②를 읽고 로봇의 처지와 행동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①	②
<p>빙고, 그러니까 에피는 그날 망가진 것이다. 날 지키기 위해 그 화염 속에서 뜨거운 줄도 모르고 자신이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날 지켜 주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에피에게 눈을 맞추었다. 바다처럼 깊고 빛나는 에피의 눈이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p> <p>“널 꼭 고쳐 줄게.”</p> <p>나는 붉은색 나뭇잎더미에 서 있는 금속만 남은 에피를 보았다. 원래 에피는 우주와 잘 어울리는 까만 털을 가진 멋진 로봇 개였다. 에피의 푸른 눈은 조금 탁해졌지만 여전히 반짝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반달을 살아도」 중에서</p>	<p>‘콜리’는 경주마의 기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수 로봇이다. ‘콜리’는 경주마인 ‘투데이’와 서로 호흡을 맞춘다. 그렇게 투데이는 신기록을 세운 경주마가 되었다. 하지만 투데이의 실력은 추락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무리하게 달려서, 결국 관절염을 얻고 말았다. 콜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투데이를 치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돈을 중요시하는 경마장 사람들에게겐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콜리는 경기 도중 무거운 자신을 싣고 달리는 투데이를 위해서 스스로 낙마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천개의 파랑」, 천선란, 중에서</p>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적어 보세요.

2.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래에 인간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할지 써 봅시다.

1. 다음은 우주선 탈출 전의 상황이다.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엄마는 설명도 없이 가만히 있는 기온의 손목에 급히 팔찌를 둘러 주었다. 팔찌에 적힌 기온의 이름이 하얀색으로 빛났다. 이름 옆에는 ‘긴급 대피 순위-①’이라고 적혀 있었다. 기온은 얼른 엄마의 옷소매를 걷어 보았다. 엄마도 팔찌를 차고 있지만 기온의 것과는 달랐다. 빨간색으로 빛을 발하는 엄마의 팔찌에는 ‘최종기술부’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기온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아직 못 가. 네 팔찌로 에피는 함께 갈 수 있어. 로봇이니까. 에피가 널 돌봐 줄 거야.”

“왜, 왜요?”

“엄마는 기술부잖아. 지금 우리 함선에 문제가 생겼어. 대피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종기술부는 남아서 수리해야 해. 민간인들이 대피할 때까지.”

엄마는 차분하면서도 무척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아빠는요?”

“아빠도 엄마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야. 우주선의 첫 번째 규칙 알지?”

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우주선의 규칙이었다.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규칙은 ‘모든 승무원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였다.

“할머니도 부함장이라, 함교를 떠나실 수 없고.”

기온이 물어보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말했다. 기온은 밀려드는 두려움에 숨 쉬기 어려웠다. 두려움이 가슴을 채울수록 호흡은 자꾸 느려졌고 목에 무언가 콕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나는…….”

“너도 네 자리를 지켜야지. 원칙대로 너는 긴급 대피 대상자고 우리의 미래야.”

때마침 집 밖에서 더욱 큰 굉음이 들렸다. 엄마는 에피에게 무슨 말을 했다. 하지만 기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비명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반달을 살아도」 중에서

1) 기온의 가족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2) 기온의 어머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유추해 봅시다.

3) 내가 기온의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고, 내용을 짝과 함께 토론해 봅시다.

'나'의 생각	짝의 생각
주장: 내가 기온의 엄마라면? 이유:	주장: 내가 기온의 엄마라면? 이유:

1. 「달 아래 세 사람」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인물 떠올리기 주요 인물을 써 보고,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 봅시다.	은별	
	홍 유생	
	아빠	
	엄마	
주요 사건 떠올리기 누가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유롭게 써 봅시다.		
단어/구절 떠올리기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단어, 인상 깊은 구절 등을 써 봅시다.		

1. 「달 아래 세 사람」 모티브가 된 그림과 작가의 말을 참고로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2020년 여름, 우연히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천문학자 이태형 씨가 신윤복의 <월하정인> 속 달 모양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제작 시기와 시간까지 정확히 알아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림은 1793년 7월 15일(음력) 밤 11시 50분께 그려졌고, 승정원일기에 그날 '오후까지 비가 오다 그쳤고 밤 2경에서 4경까지 월식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았더니요. 그동안 초승달을 잘못 그렸다고 여겨진 <월하정인>은 월식 중인 달을 그린 거였어요. 그 후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림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시간, 그림 속 주인공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했던 저는 두 월식이 일어나는 1793년과 2045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어요. 「달 아래 세 사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작가의 말

1) 다음은 조선시대 풍속화가 김홍도의 그림이다. 제목을 자유롭게 상상해 봅시다.



제목:

김홍도의 ()

2) 그림의 상황을 정리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나만의 소설이나 이야기로 써 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

제목()

1. 「외계에서 온 박씨」를 읽고 계코19가 수행하는 임무를 요약하고,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일이나 느낀 점을 정리해 봅시다.

	임무 내용	계코19가 임무를 수행하며 겪은 일 및 느낀 점
임무 1		
임무 2		
임무 3		
임무 4		
임무 5		
임무 6		
임무 7		

1. 다음은 게코19가 지구에 와서 지구인의 공생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게코19가 나중에 지구인의 공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지 본문을 참고하여 써 봅시다.

제비가 지구인과 공생 관계라고는 하나 이토록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줄은 게코19도 몰랐다. ‘공생’은 메다우스를 포함한 은하계 대다수의 행성에서 흔치 않은 개념이다. 스스로 지키지 못한 개체와 좋은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락한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해 다른 개체와 도움을 주고받겠다는 개념은 낯설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게코19는 개체 독립성이 강하기로 이름난 메다우스인이었다. 예비 은하영웅 게코19에게서 혼자 힘으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아 간 집주인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다.

게코19는 연달아 도움을 받은 것이 분하기만 했다. 메다우스에서는 이웃이나 동료에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함부로 돕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었다. 스스로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었다. ‘내 임무를 망쳐 놓고 이렇게 기뻐하다니! 이놈들은 악당이 틀림없다.’

<중략>

게코19가 보기에는 남을 도울 힘으로 각 개체가 스스로 생존해 나가면 될 일이었다. 자신의 일을 제쳐 두고 남을 돕는 것은 곧 자신과 남을 모두 망치는 지름길이었다.

“형수님, 아내가 산달이 꼭 찾는데 변변히 먹지도 못했소. 조금만 도와…….”

흥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놀부 아내가 들고 있던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후려갈기는 게 아닌가! 게코19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척 모질구나! 이렇게 훌륭할 수가!’

게코19의 눈에는 놀부 아내의 매질이 흥부를 자립하도록 자극하는 행동으로 보였으니 말이다.

「외계에서 온 박씨」 중에서



힌트1) 게코19의 아버지가 남긴 말 “지구는 달라. 아주 특별한 별이야.”

힌트2) 본문 151~152쪽을 꼼꼼히 읽어 보세요.

게코19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발표해 봅시다.

1. 「달의 뒷면에서」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O, X 문제에 답을 해 봅시다.

1) 화자인 나의 이름은 '빛나'이다.	
2) 갑자기 나에게 나타난 사람은 '새빛'이다.	
3) 새빛은 나보다 2살 어리다.	
4) 새빛은 2055년에서 2019년으로 온 것이다.	
5) 새빛은 빛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6) 양자 역학에 따라 하나의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평행하게 이동하는 여행을 통해 과거로 온 것이다.	
7) 시간 여행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빠는 함께 올 수 없었다.	
8) 새빛은 2019년에 이를 머물 수 있다.	
9) 빛나와 새빛은 함께 떡국을 끓여 먹는다.	
10) 새빛은 마지막 '돌' 하나를 보내 준다.	

2. 다음은 '새빛'이 과거 여행 조건으로 제출한 서약서에 대한 내용이다. 만약 이러한 서약서가 없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여 써 봅시다.

“이번 주 로또 번호는?”
 “몰라.”
 “뭘야, 미래에서 왔다면.”
 “그러는 엄마는 30년 전 로또 번호 알아?”
 아, 이래서 사람이 역사 공부를 해야 하나 보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한테 미래는 없다더니. 내가 우물쭈물하니 새빛이 웃는다.
 “알아도 못 알려 줘. 서약서 썼거든.”
 “무슨 서약서?”
 “시간 여행 약관 동의서랑 보안 서약서. 그걸 시간 여행 관리국에 제출해야 여행을 할 수 있어.”

「달의 뒷면에서」 중에서

선생님께 학생과 수업 시간에 함께 읽는다면 위 과정을 1~2차시로 조절하여 활용합니다. 양자역학, 평행 우주 등 어려운 어휘는 찾아보며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면 더 좋습니다.

13차시

「달의 뒷면에서」 읽고 깊이 생각해 보기

1. 새빛은 빛나에게 2055년에 가족이 함께 달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어떤 사고일까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여 이야기를 완성해 봅시다.

--

14차시

「달의 뒷면에서」 읽고 생각 나누기

1. 평행 우주, 시간 여행 등을 소재로 다룬 영화나 드라마, 책을 하나 떠올려 보고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보기로 제시된 내용도 무관하고, 다른 내용을 써도 좋습니다.

영화
드라마
책

2. 정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생생하게 이야기하듯 발표해 봅시다. 친구들은 어떻게 발표했는지 내용을 듣고 메모합니다.

1. 보기는 모두 지구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서 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p>① 내가 사는 지구는 대오염의 시대를 맞이했다. 기후 변화로 심각한 대기 오염이 발생해 호흡기 질병이 생겼고,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바로 ‘논(None) 바이러스’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논은 이름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으며, 논은 한번 감염시킨 숙주를 세상에 남겨 두지 않았다. 「항체의 딜레마」 중에서</p>	<p>② 지금은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고글과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벗고 싶어요. “그게 바로 자살행위예요.” 여름은 양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세상을 등지려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고글도 마스크도 벗어 버리고 싶을 때가 온다고요. 그런 걸 소위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여름이, 옵니까?」 중에서</p>
<p>③ 지구 환경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관련한 책을 검색해 보기</p>	<p>④ 크레타 튼베리 연설 영상 -유튜브 검색</p>

지구 환경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	
①	
②	
③	

2. 「여름이, 옵니까?」처럼 사물과 대화가 가능하다면 꼭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은 사물을 쓰고, 그 이유를 써 봅시다.

1. 아래 글을 바탕으로 '여름'이 행한 행동을 유추하고, '여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여 검사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그게 말이야. 누구한테 어떤 부탁을 받았는데 그 부탁이 네가 내게 했던 거랑 근본적으로 분명 똑같거든? 그런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어찌먼 좋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여름에게', '부탁'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유추가 가능했죠. 분명 누군가가 여름에게 민철의 사무실에서 내가 했던 것처럼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럼 해 달라는 대로 해 줘.]

<중략>

“그런가? 그럼 한번 해 보지 뭐. 그래, 하자.”

<중략>

“당신들이 훔쳐 간 미니벨루가가 얼마인 줄 알아?”

민철의 미간이 날카롭게 좁혀졌습니다.

[미니벨루가?]

“그게 뭔데요? 들어 보지도 못한 걸 훔쳤다고 하시니 어이가 없네.”

사내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나야, 나라고! 이미 멸종된 벨루가 유전자를 미친듯이 구하고 변형시켜서 작게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알기나 해? 자그마치 1조야. 1조! 네깃 놈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만져 볼 돈이니까 탐이 났겠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름이, 옵니까?」 중에서

1) '여름'이 한 행동을 유추해 적어 보세요.

2) 검사와 변호사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을 정리해 보고, 짝과 역할을 나누어 얘기를 나누어 보세요.

검사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17차시

활동 내용 갤러리 워크하기

1. 활동한 내용으로 갤러리 워크를 해 봅시다.

「향체의 딜레마」 전체 학습의 결과물을 모둠별로 전시합니다.

- 글, 그림, 도표, 발표지 등 모든 활동지를 활용합니다.
- 창의적으로 재구조화해도 좋고, 그대로 전시해도 좋습니다.
- 칠판, 교실 벽, 책상, 이젤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전시합니다.



모듬에 남아서 설명할 사람과 관람할 사람을 상의하여 나눕니다.

- 모듬원 중 일부만 모듬에 남아서 설명 및 안내를 합니다.
- 나머지 학생은 자유롭게 다른 모듬의 전시물을 관람합니다.
- 설명자와 관람자는 역할을 바꾸어 실시합니다.



자유롭게 관람하며 다른 모듬의 설명을 듣습니다.

- 설명자는 다른 모듬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량으로 설명합니다.
- 관람자도 설명자를 배려하여 경청하는 자세로 듣습니다.



마음에 들거나, 인상 깊은 전시물에 포스트 잇을 활용하여 감상평을 붙입니다.

- 긍정의 감상평을 합니다.
- 더 발전할 수 있는 팁이 되는 피드백을 합니다.



모듬원이 자신의 모듬으로 돌아와서 메모를 읽으며 피드백을 합니다.